

전군주요지휘관 오찬

군의 복지와 전역 군인의 사회 적응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시다.
군은 자주국방 국가의 자주군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전군 주요지휘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방장관님, 어 - ‘님’ 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국방장관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는 점이 실감났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심정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이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방되고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절반의 국가를 세워놓으니까 남북 간에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전후해서 내부적 갈등 때문에 군이 거쳐 온 역사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절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군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때는 군인이 정권을 잡아서 재미 본 사람도 있지만 군 전체로는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군사정권 욕하는 게 우리 군이 욕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몇몇치 않은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대북방위가 제일 중요한데 북한이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 되면서, 어떤 법은 적이고 반국가단체로 돼있고, 어떤 법은 교류와 협력의 절차를 만들어놓고. 주적 표기를 어떻게 할지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대선 때 우리 국방 수준이 어느 정도면 좋겠는지 앞으로 군 전투력을 어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맞는데, 주적이 누구냐 질문을 받아서 난감한 그런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군의 역할은 조금도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변화하게 돼있고, 거기에 우리 국군이 새롭게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군이 과거처럼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고,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스스로 나라 보위하는 자주국방국가의 자주군대로 떳떳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어려움을 잘 현명하게 이기면서 극복해주십시오.

저에 대해 여러 의심하는 얘기가 많았으나 마주앉아 무릎 맞대고 대화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세밀한 부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질문도 해주시고 토론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국민이 목표를 공유하고 다듬어 갑시다. 제 임기 말쯤이면 군의 위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사기를 떨어뜨리는 잡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이 자력으로 그때그때 위협을 충분히 방위할 수 있는 자

주국방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기왕 말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약속하겠습니다. 군의 복지와 전역 군인의 사회 적응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군인은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고, 보텔 말이 있으면 맺음말 순서가 있으니 또 보태겠습니다.